

# 광주시·자치구·농민단체, 농민수당 도입 '맞손'

### 광역시 첫 내년부터 60만원 지급 추진... 시·구 예산 분담 8대 2

광주시와 자치구, 농민단체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5개 자치구, 4개 농업인 단체와 농민수당 지원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4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했으며 2023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추진을 목표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농민(단체)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활동에 적극 동참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광주시가 예정대로 농민수당을 도입하면, 전국 광역시 중 첫 사례가 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농가당 60만원 지급을 목표로 농민수당논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예상 수령자는 8500여명으로 예산은 시와 자치구가 8대2 비율로 부담한다. 농민수당은 가사, 시민참여 수당과 함께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광주형 3대 공약까지 수당' 중 하나다. 정성도 한국농촌지도자 광주시연합회 회장은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들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민수당 지원협약을 하게 돼 기쁘다"며 "농업인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밥상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는 농업인과 생명의 공간인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준 자치구 덕분에 추진력을 얻었고 앞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우수 농업인 표창, 우수 농특산물 품평회, 전통 공예·놀이 등이 진행됐으며, 한국농촌지도자 광주시연합회 최성자씨 등이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용전들노래’ 가을걷이 행사** 광주시 지정 무형문화재 22호인 ‘용전들노래’의 보존 및 전승, 발전을 위한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가 13일 오후 광주 북구 용전마을에서 열렸다. 농민 복장을 한 마을 주민들이 모판뵈기-모짜기-모심기-논매기-벼베기 등의 공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 동남아 단체 관광객 유치 성공

### 도·전남관광재단 등 현지 여행사 대상 홍보 싱가포르 140명·베트남 34명 잇따라 방문

전남도, 전남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가 힘을 모아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전남 관광객을 모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싱가포르에서 전남 우수관광상품 콘테스트를 개최해 현지 여행사를 선정하는 등 전남의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동남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13일 “싱가포르의 단체관광객 140명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 동안 전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남을 찾은 동남아 단체 관광객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 여행사 대상 전남 우수관광상품 콘테스트를 개최한 결과 ‘홍타이 트레일’을 선정, 단체관광객을 모집했다. 김해공항을 통해 방문한 싱가포르 관광객들은 광양 와인동굴, 순천 낙안읍성, 보성 녹차밭, 담양 죽녹원, 신안 퍼플섬, 목포 동부시장과 해상케이블카, 완도 전복체험, 강진 청자만들기 체험과 강진만생태공원, 여수 낭만포차, 여수 아리데 뮤지엄과 고소동 벽화마을 등 도내 9개 시·군을 찾았다. 또 꼬막 비빔밥, 보성 녹돈쌈밥, 담양 죽죽밥과 떡갈비, 목포 9미 정찬, 해물찜 등 전남 정경 농수산물을 만든 남도의 음식을 경험했다. 베트남 관광객 34명도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오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목포 해상케이블카, 한류 드라마 ‘호텔 델루나’ 촬영지인 목포근대역사관, 여수 낭만포차, 향일암,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를 체험하는 등 동남아 관광객들이 속속 전남을 찾고 있다.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그동안 해외 현지 관광업계와 소통하고 국가별 맞춤형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관광 재개 이후 규모 있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단체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도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에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 신설

### 시·카카오모빌리티 협약...200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기대

광주시에 200석 규모의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가 들어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시청 비즈니스에서 (주)카카오모빌리티와 고객센터 유치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광주시에

200석 규모의 고객센터를 신설한다. 광주시는 관련한 제반 행정적 서비스 제공과 ‘시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광주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200여 명의 경력단절 여

성과 청년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광주 동구에 사무실 문을 열 예정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내 카페 운영, 네일숍 운영, 카카오톡 포인트 매달 지급 등의 다양한 복리후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고객센터 신설 투자는 서울 2곳을 제외하면 지역 첫 사례로, 광주의 우수하고 풍부한 인적자원, 저렴한 임대료 및 관리비용, 폭넓은 행정·재정적 지원 등 차별화된 유치 전략의 성과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남도장터’ 김장 재료 최대 30% 할인

### 내달 15일까지

전남도가 다음달 1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김장비용이 부담스러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 남도장터 할인행사에 돌입했다.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굴, 천일염 등 수산 재료는 최대 30%를, 절임배추, 김치소(양념), 고춧가루, 고기류(목살, 삼겹살) 등은 최대 20%를 할인한다.

절임배추 등 전남산 김장재료는 정정지역 전남에서 정성껏 가꾼 신선한 농축수산물로 소비자들이 믿고 알뜰하게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섰다. 또 전남산 절임배추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안전하고 100% 전남산 배추만 엄선해 만들어 품질도 우수하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할인행사가 소비자는 구매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